

2022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사랑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민주 강수연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고경남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정숙 고현준 곽경자 곽미란 광승현 광창훈 구인순 권경숙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일연 권현명 김갑훈 김 경 김경숙 김경숙 김경식 김경자 김경희 김경희 김광영 김규자 김근희 김나연 김대원 김명승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석우 김선미 김선일 김성남 김성숙 김성연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세영 김세은 김세환 김소연 김수빈 김수정 김순희 김시화 김신실 김알음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란 김영빈 김영수 김영순 김영훈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우란 김운남 김원순 김유근 김유영 김윤지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인에 김일순 김재원 김정윤 김정민 김정희 김정희 김종예 김종일 김주아 김주영 김주원 김주택 김주현 김종렬 김지선 김지영 김진아 김진호 김준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산 김태은 김태현 김해련 김행미 김현리 김현미 김현지 김형순 김형재 김형진 김형채 김혜경 김혜경 김혜순 김혜인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효정 김훈희 김희주 나종하 남궁성 남궁민 남궁혜경 남윤숙 노미화 노진 마진아 모지영 목정현 문복희 문정은 문정인 문채은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박경선 박귀영 박금연 박기복 박명철 박병준 박상근 박상현 박서정 박선경 박선주 박성욱 박성호 박성희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래 박정화 박종임 박주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해동 박해정 박희경 반정인 반준우 방기심 방지연 배민희 배서현 백수정 백창환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강기업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서옥경 석영근 선창민 성경자 성화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희경 손희경 송경화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인옥 송재울 송정희 송주명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부경 신선우 신영란 신우성 신재희 신정현 신지혜 심수연 심재현 심형창 심홍순 안길준 안인숙 안재홍 안지원 안춘미 양상국 양승례 양애숙 염태용 연영진 오다혜 오선아 오연주 오진영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우지민 원용원 원유정 원정환 유계순 유보라 유애희 유윤석 유진숙 유현선 유호심 유효경 윤문식 윤보현 윤선주 윤소연 윤애숙 윤영균 윤정애 윤준구 윤지영 윤희도 이강욱 이경범 이경애 이경혜 이대성 이도호 이두환 이명순 이명윤 이명화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민주 이백채 이병호 이봉운 이상희 이서연 이선순 이선아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승미 이승원 이신애 이영남 이영애 이영원 이영희 이예은 이용주 이우진 이원희 이윤영 이윤승 이은경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필 이은희 이익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영 이정민 이정선 이종례 이주기 이주영 이지연 이지옥 이지은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해숙 이해영 이해영 이홍근 이환진 이효정 이희재 이희진 임상원 임솔아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용서 임은선 임은정 임재경 장길수 장상화 장선심 장승철 장영진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수경 전은국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해림 전해숙 정경례 정경옥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병택 정상임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아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용환 정원대 정원재 정유정 정은선 정정희 정판오 정현아 정형심 정혜옥 정혜정 정희백 조경오 조미경 조성환 조애진 조연호 조영근 조윤성 조은경 조 정 조지혜 조하영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현희 주수연 주은아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태을 차태수 최경숙 최귀염 최난경 최미선 최미점 최선영 최숙정 최영민 최옥명 최유진 최은주 최정숙 최정열 최준순 최준식 최지현 최지현 최진옥 최해옥 최해원 최향숙 최흥숙 추정완 풍뎡이영어도서관 하미화 하연화 한경신 한금식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시우 한정수 함윤수 함윤희 허공균 허혜정 홍기표 홍성진 홍우정 홍윤주 홍정민 홍정민 황소영 황은영 황은영 황대성 황혜숙 황혜영 황화선

평생회원 김혜림 문정은 이한신 최국진 **활동가 지원 마중물 특별회원** 김나연 김미경 남궁혜경 이해경

- 고양YWCA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 '아띠' 웹테터는 매월 회원님에게 보내지는 YWCA친한 친구의 편지입니다.
웹테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회원님의 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후원참여방법

CMS회원 월 만원이상 **평생회원** 100만원
일반회원 연3만원 **특별회원** 10만원이상
어린이회원 연5천원 **Y틴회원** 연5천원
물품후원 후원해 주시면 작은물품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 고양YWCA)

회비 사용처

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 여성노동자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 노년세대들을 위해 디지털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카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사업에 쓰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회원가입 문의 : 031-919-404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고양 YWCA

www.kyywca.or.kr



Goya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꽃이야기 - 벌개미취

꽃천지입니다. 가을이 되니 국화종류들이 쑥쑥 나옵니다.

여름이 가기를 기다렸나봅니다. 벌개미취, 옅은 보랏빛이
슬쩍슬쩍 부는 찬바람과 잘 어울립니다.

가운데 노란빛은 가을햇빛을 닮아 진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진하게 빛나는 노란빛이 꽃입니다. 벌처럼 많은 수가 모여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이름이 이상하지요.. 벌, 개미, 취 라니 잘못들은 걸까요?

유난히 벌과 개미들이 꽃에 많이 드나듭니다. 물론 나비와 잠자리 등

다른 곤충들도 꽃에 많이 모여들지요.. 그런데 왜 벌과 개미만 이름에 들어갔을까요?

다른 아름다운 이름 말고 왜 곤충이름을 넣었을까요?

이름에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이야기가 들어있겠지요!

꽃대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을꽃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파리는 '취' 종류들처럼 약간 넓어서 취라는 이름이 붙었겠지요.

햇빛 줄고 물이 많은 들판에 가득 피어나는 벌개미취는 '코리안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데이지'하니 잘 아는 꽃처럼 느껴지지요.

벌개미취 말고도 쑥부쟁이, 산국, 감국 등 들국화라고 부르는 향기로운 꽃들이 많습니다.

이 가을 벌처럼 빛나는 꽃들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향숙 고양YWCA 위원



CONTENTS

기획기사

-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앞에서

활동보고

- 키다리학교
- 기후 강사 역량 강화 교육
- 민주시민 교육
- YWCA 여성평화순례

Y가족이야기

YWCA 및 지부 NEWS

후원자 명단

발행 | 고양YWCA

발행인 | 윤정애

편집인 | 이경애

홍보출판 | 권경숙, 윤정애, 정수빈,

위원 회 | 최향숙, 함윤희, 황혜숙

편집 | 남궁혜경, 박선영

발행처 |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화 | 031) 919-4040

팩스 | 031) 913-4042

펴낸곳 | 나라기획 031)968-7450

VOL. III

가을 2022

YWCA (사) 고양YWCA

성명문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며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뿐 아니라 각지에서 산사태, 지반 침하로 생명다양성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 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기업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목표와 선언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인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와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시민들의 집이 가라앉는 동안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다배출 대기업과 그 총수들은 어떤 안전가옥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나아가 주거, 노동, 농업, 장애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부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에 나서라. 이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없다. 폭우라는 이름으로 눈 앞에 다가오는 기후위기가 그것을 선명하게 확인시켰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동료 시민을 기억하자. 그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 그들에 대한 시민적 연대로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이 곧 기후정의다.

2022년 08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7월6일(수)~7일(목) 이틀간에 걸쳐 파주 지지향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되는 YWCA 여성평화순례와 포럼에 참여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념사업은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라는 주제로 국제여성평화포럼, 여성평화기도회, YWCA여성평화순례를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제여성평화포럼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전쟁 속 복구 활동, 이스라엘 통치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평화활동, 일본 여성들의 평화와 헌법 수호 활동, 한반도 여성들의 평화 활동과 전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비롯하여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세계YWCA 여성들의 평화연대를 위한 담론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폐제 형식의 여성평화기도회를 통해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보기도로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YWCA 평화순례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된 평화순례는 여성평화기도문 낭독,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평화를 바라보며 꿈꾸고 외치는 평화순례단의 릴레이 순례가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기 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속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순례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으로 황폐화된 이 땅을 희망과 평화의 북소리로 변화해 나가는 전화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걸음에 힘차게 나아가는 (사)고양YWCA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1박 2일간의 YWCA여성평화순례길 탐방을 통해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전쟁 속 위협에 노출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상황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그들의 급박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임을 기억하고 함께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또한 의미 있었다. 그들을 위해 잠잠히 기도하고 평화를 소망하며 드리는 평화 기도회 시간이 참 좋았다.

- 평화순례 참가자 박선영

하루아침에 일상이 바뀌고 전쟁 중에 살아있으니 기쁘지만 많이 지쳐있다는 우크라이나 회장님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피스메이커로서의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연대의 힘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였다.”

- 평화순례 참가자 이경애

“17년을 시작으로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담은 여성평화순례의 길이 결국 분단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임진각평화공원에서 순례의 길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염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더욱더 고착되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웨비나로 만난 전쟁을 겪는 여성들의 고통, 그 여성들과 고통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폐제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평화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함을 믿으며 다시 또 평화의 길로 나섭니다.”

- 평화순례 참가자 최향숙

대화할 수 있는 용기, 민주주의 '평화를 품은 소풍 길'



(사)고양YWCA는 6월 13일(월), 6월 22일(수)부터 7월 20일(수)까지 총 6회에 걸쳐 평화를 품은 소풍 길 '평화가 밥이다'를 진행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 이야기', '평화와 젠더', '인권', '평화로운 환경 이야기', '세상은 관계 속에 있기', '1인 평화활동가를 꿈꾸며'를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난민, 제주 4.3, 한국전쟁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확장하고 인권 보따리 활동을 통해 인종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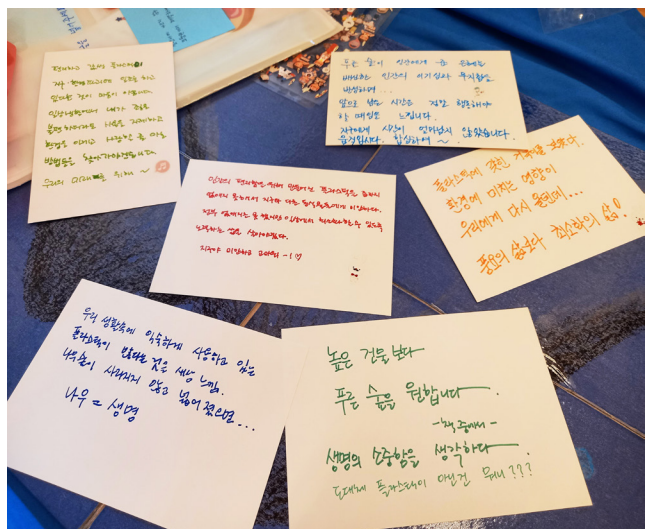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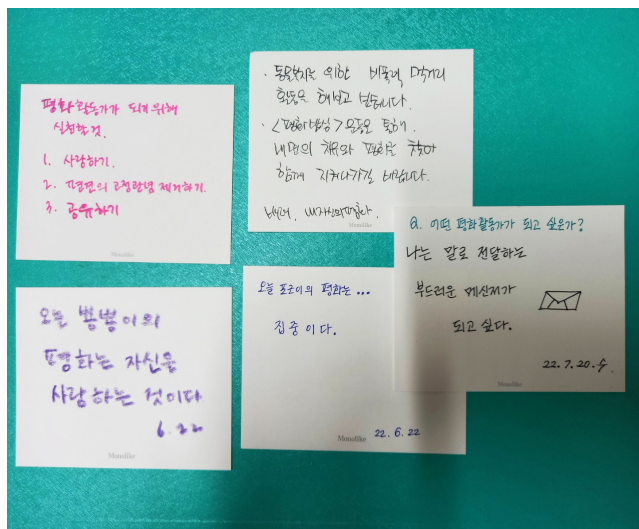
별, 장애인차별, 밀양 송전탑 사건등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며 평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 들을 나누었다.

또한 평화를 품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노사이드 전시관, 위안부와 난민 전시관을 관람하며 평화활동가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평화 이야기를 담아 평화 팝업북 활동을 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분쟁 속에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일상의 평화를 넘어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인권 감수성, 평화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처럼 3색 물감 놀이를 하면서 나를 표현했던 첫날부터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것으로 부터 벗어나 나의 과거와 오류이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기대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속앓이했던 시절의 내 모습을 담담히 마주하며 많이 성장했음을 새삼스레 실감할 수 있었고, 함께 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진 존재들이고, 나눌수록 치유되는 소중한 경험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자 명정숙



‘푸른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강사단’ 양성과정



고양YWCA는 경기도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후원을 받아 강사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2일(월)~8월 30일(화) 18시간에 걸쳐 푸른 지구를 위한 기후 행동 강사단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 중립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기후위기현안에서 중요한 에너지전환의 문제, 전 세계 쓰레기 현황과 자원순환정책, 축산업이 지구환경

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와 먹을거리의 관계를 심층깊게 살펴보면서 기후 강사단의 지식적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기후 강사로 활동하게 될 강사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놀이를 통해 배우는 기후환경교육을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의 강의시연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후강의의 기술, 방향성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단들은 추후 경기도 초·중·고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강의를 진행한다.

“10년 전 5년 전 기후변화 강의 때와 비교할 때 달라진 건 가속이 붙었다는 것이다. 급박할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다양한 결과들, 이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그 충격이 아직 세계 오진 않았지만 이번 겨울, 내년, 그리고 5년 이내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행동만이 남아있는 때이다. 한국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학교도 빨리 알아차리고 진정성 있게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 기후 행동 강사단 김지영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유발 현황과 그 결과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의 현상과 피해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 되는 쓰레기 문제 등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정보보다 더 크고 깊은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등을 배우면서 이 문제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구에 사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냉엄한 현실에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슬기롭게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기쁘고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기후 행동 강사단 안지원

“교육에 참여하면서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면서 힘든 미래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과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길은 열릴 수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 기후행동 강사단 김미자

“기후위기 속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닌 변화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하신 조길예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습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알맞은 관계형성을 한 후에 과학적 지도안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진심이 담긴 자세로 신념과 철학을 전달하는 행동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 기후 행동 강사단 조지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청소년들 기후환경 꾸러미를 만들다’ 키다리학교



재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한다. 기후위기는 돌봄 가족이 있는 여성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거주지가 열악한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이번 여름 폭우로 반지하 발달장애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재난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고 기후취약계층에게 닥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키다리학교는 2018년부터 환경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사례를 배우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가정폭력으로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는 폭력피해여성들에게 기후환경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꾸러미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3개월 동안 격주로 모임을 가지며 꾸러미 물품을 구상하고 제작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천연수세미를 만들고, 산업폐기물인 양말목으로 티코스터(겹받침)를 만들었다. 또 광목파우치와 대나무칫솔에 새길 환경보호 캐릭터를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꾸러미에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주길 바라는 청소년들의 편지와 기후위기 정보를 담은 안내문도 동봉하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과 고양시여성의심터에 25개씩 전달하였다.

2022년 키다리학교는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기후위기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과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적 재난으로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앞으로 키다리학교는 올해 배운 내용과 활동을 취합하여 거리에 나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평등이 평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환경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청소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소망해본다.



제 10회 고양여성영화제

‘돌본다는 것에 관하여’ - 상호돌봄, 생태돌봄의 시선으로 -

코로나를 지나며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고양여성영화제를 3년만에 다시 엽니다. 코로나 19상황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돌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0회를 맞이하는 고양여성영화제를 통해,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노동의 현실을 짚어내고, 시장화된 돌봄을 넘어선 상호돌봄을 통한 돌봄가치의 회복, 더 나아가 생태적 돌봄으로의 확장된 세계관을 통해 한정된 인식 속의 ‘돌봄’을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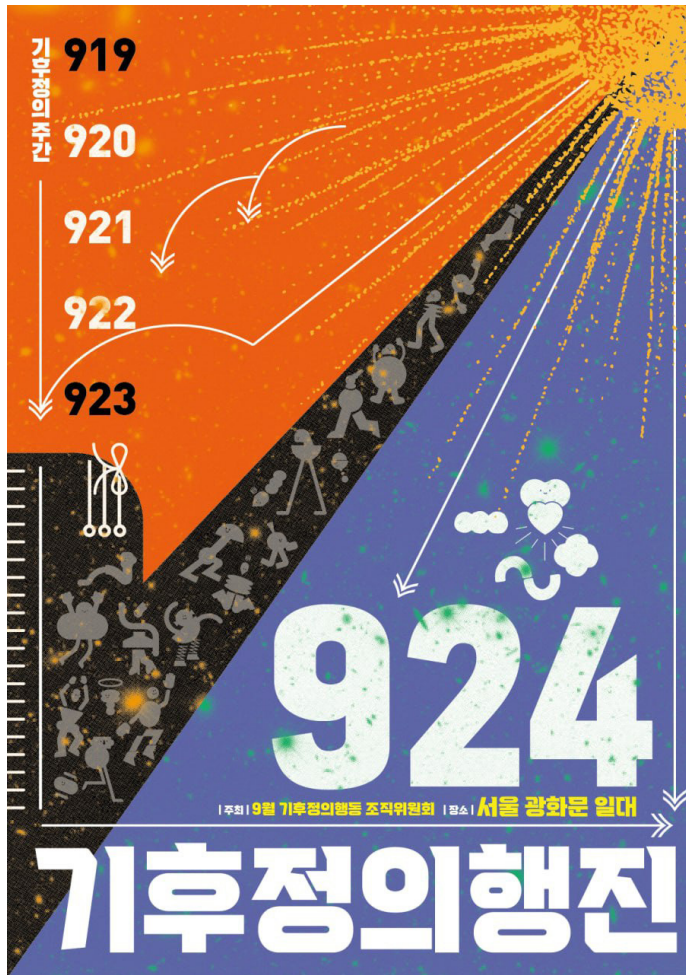
1.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20(화)
2. **장소** : 일산CGV, 백석메가박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3. **주최** : 고양YWCA
주관 :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영화나눔협동조합 씨네쿵
후원 : 고양특례시
4. **신청방법** : 선착순접수
 - ① QR코드 신청 :
 - ② 전화신청 : 고양YWCA 031-919-4040, 고양여성민우회 031-919-1003
 - ③ 온라인신청 : <https://naver.me/GG4pOBxV>



일정	9/15(목)	9/16(금)	9/17(토)	9/19(월)	9/20(화)
10:00	-	미싱타는 여자들	감독과의 대화 육창	말임씨를 부탁해	내가 날 부를때
		고양영상미디어센터	CGV일산	메가박스 백석	CGV 일산
14:00	해설이 있는 영화	토크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 지키는 활동가'	해설이 있는 영화	감독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
	아담 (개막작)		혼자 사는 사람들	잡식가족의 딜레마	16:00 구르는 돌처럼
	CGV일산		CGV일산	메가박스 백석	고양영상미디어센터
19:00	해설이 있는 영화	감독과의 대화	패러렐마더스	레벤느망	감독과의 대화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플래닛 A			에프터미투 (폐막작)
	CGV일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 9.24 기후정의행동



산업혁명 이후 지구평균온도가 1도 오른 현재, 세계곳곳은 폭염과 폭우,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류대멸종이라는 중차대한 위기 속에 놓여 있으나 이 위기를 대응하는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기후재난이 심각한 것은 불평등구조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들에게서 더 가혹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이번 여름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의 참사소식을 안타깝게 접해야만 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빗어지고 공고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전세계적인 기후운동이 등장했고 한국사회에서는 2019년 9월 처음으로 기후대중운동이 등장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외치며 모여들었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와 지자체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고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기후위기대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의와 불평등의 문제를 평등하고 존엄한 삶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세상은 달라졌는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은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고, 기후위기해법을 개인의 삶의 전환, 즉 절약과 절제를 요구하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넘기며,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는 기업의 책임은 뒤로 빠져있다.

이에 중차대한 기후재난의 시대,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9월 기후정의행진에 연대하고 참여하고자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고양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의 : 고양YWCA 031-919-4040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여의 시간을 한 기관에 근무하며 회노애락을 함께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옥 선생님과 여성의 쉼터 황혜영 팀장님의 아쉬운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고양Y식구들 모두 두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축하합니다.



나에게 고양YWCA란?

사람을 만나는 곳,

나의 생각과 방향성을 이끌어 주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빛나는 순간은 미완성이고 앞으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을거예요. 기도합니다.” 마지막 퇴임식에서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셨던 분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다면 나에게 직장이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 더 빛나는 순간들이 있도록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던 존경하는 친구를 만난 곳입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고슴도치 같은 나에게 스며들어 나도 흉내 내 봅니다. ‘그럴 수 있어’라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 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셨던 사람도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 먼 곳까지 가서 정성 들여 만들었던 ‘나만을 위한 밥상’ 작품을 망설임 없이 선 듯 주시던 쉼터의 식구.... 나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내 안에 아주 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고양YWCA를 만나 더 확장하여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성의 쉼터 황혜영 팀장

인생 2막을 맞이하며 퇴직즈음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정년 퇴임을 한지 벌써 두어달이 지났습니다.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과분한 퇴임식을 멋드러지게 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혼자만의 퇴임식이 아니고 쉼터 선생님과 같이 퇴임식을 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멋쩍음이 덜해져서 ㅎㅎ)

멋모르고 시작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장생활이 1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센터장님 이하 총 9명의 가족 같았던 직원들이 퇴직할 때에는 29명으로 3배나 커져서 어떤 때는 얼굴도 잘 모르는 직원이 생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회계업무도 매우 확장이 되어서 예·결산 및 직원 모두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예산은 80배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2009년부터 300여명이나 되는 아이돌보미의 사회보험과 세무신고를 하는 등 참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사회복지 기관으로 인가되어 사회복지 매뉴얼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교육을 받을 곳도 따로 없어서 다른 기관에 묻고 또 물어서 예산 짜고 결산하고 공시하고... 모두 다 같이 함께한 행사도 많이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밤 때 직원들 공연한다고 맞춘 춤동작 워크숍에서 함께하며 밤새 나눈 이야기들 10주년 행사 때 사업보고 자료집 제작하느라 10년 동안의 사진 뒤져가며 자료 수집하고 원고 접수하고, 500원 깎아달라던 참여자를 달래가며 물건을 팔 욕심에 열심이었던 장터..

새삼 정년퇴직에 즈음하여 원고를 써 달라는 부탁에 기억의 저편에 있는 추억들을 꺼내봅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고 함께 했던 시절의 아름답고 때론 어리버리 했던 추억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가슴 아리네요..

제 인생에서 젊은 시절 한때를 함께 할 수 있었던 직장생활을 참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그동안 함께 했던 직원들의 얼굴이 많이 생각합니다.

lip service를 잘못하는 촌데레 성격의 저를 잘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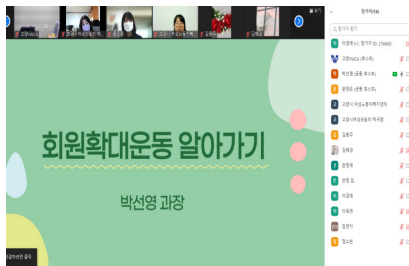
참 고마웠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파스한 가슴속 마음 까지 전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윤영옥



왼쪽부터 윤영옥 직원, 윤정애 회장, 황혜영 팀장

회원확대운동 보고회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고양YWCA의 50일간의 회원확대운동 중간보고회와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중간보고회는 줌으로 진행하여 목표와 목적을 점검하며 Y운동과 방향성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결과보고회를 통하여 Y운동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여 목표를 달성한 활동가에게 시상하고 격려하였다. 고양Y의 힘은 회원이다. 회원이 있음으로 Y가 존재한다. 성 평등한 세상,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정의·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양YWCA와 함께 할 회원을 찾고 선한 사업에 동행해 주실 회원을 기다린다.

[회원무료특강]

아로마 모기기피 스프레이 및 버물리연고 만들기



고양Y의 운동에 동참하시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만드는 7월 무료특강을 진행했다. 실습에 앞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알게 되었다. 실습에 9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름철에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모기기피 스프레이와 버물리 연고를 만들고 나누는 즐거운 체험을 하였다. 회원들을 위해 매월 둘째주 화요일 진행되는 회원특강이 9월에는 지구를 살리는 작은실천으로 삼베수세미 만들기과 10월 천연주방세제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교육]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홍보물 제작



그동안 주춤했던 행사와 교육이 활발해 지면서 홍보 책자와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성인지 관점으로 작업할 필요를 느껴 전체 직원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성인지 관점은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번 교육이 기관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나 캐릭터, 문구등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성 불평등 사례를 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성평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경기농산물 사후관리



6월 17일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을 인증받은 생산농가의 사후관리 점검을 위해 생산농가를 방문하여 식품의 잔류농약과 토양중금속검사 결과, 수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증명을 요하는 품질관리 점검, 위생관리 점검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점검 후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 G마크 인증을 받은 대부분의 생산농가는 학교 및 단체급식을 위한 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가운데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고양시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색식생활 지원조례 만들기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사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두번째이야기’사업에서 모니터링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식생활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

지난 7-8월 동안 주 1회 모임을 하면서 타지역 녹색식생활 지원조례를 비교분석하였고, 고양시에 적합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향후 공청회와 결과보고를 통해 시민이 만든 조례안을 고양시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포장실태 조사

고양YWCA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친환경적 운영, 제로웨이스트 실천시범사례를 만들고, 소비자, 농업인, 매장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 확산을 조성해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 10명은 지난 6월 20일~26일까지 지역 로컬푸드매장 10곳을 방문하여 상품의 포장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초작업을 진행하였다.

식품의 이동거리가 짧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음식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실천시범매장들이 생겨서 포장재를 줄여가므로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물품후원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힐스 로타리 클럽에서 10kg 쌀 65포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물품지원봉사를 하고 있는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고 이번 후원물품은 가정폭력피해 여성들과 비정규직 돌봄노동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한 나눔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Y가족소식

- 윤정애 회장 장녀 결혼식을 9월 17일(토) 오후 1시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진행한다. 두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축하한다.
- 김형순 이사가 6월 2일 다누리 반찬가게(일산 동구 마두동 913번지)를 개업했다. 맛깔스런 밑반찬과 찌개, 김치 종류를 판매한다.
- 6월 30일 여성의쉼터 황혜영 팀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윤영옥 직원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하였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10여 년을 함께한 직원들을 축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 20년 근무한 이경애 사무총장이 8월 10일 ~8월 30일 안식년 휴가를 다녀왔다.
- 8월 5일 상담소 이해영 상담원의 시부상과 8월 24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전선운 소장의 형제상이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 여성의 쉼터 김인에 직원 6월 20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장길산 직원 6월 8일, 조선휘 직원 7월 1일, 김재찬 직원 8월 3일에 입사하였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혜로운 조부모의 요즘 육아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혜로운 조부모의 요즘 육아’ 조부모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총 2회기로 실시 되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조부모 양육 코칭을 주제로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긍정훈육을 위한 태도, 실천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손자녀와 소통 놀이법으로 동요 및 율동배우기, 그림책 놀이법 등 긍정적 상호작용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부모 자녀 관계향상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 및 행복감을 증진 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아동기 부모교육> 자녀 성교육, 이제는 부모가

- 일 시 : 2022년 10월 29일 - 11월 5일(매주 토) 10:30-12:00
- 내 용 : 성적 발달 특징, 성적 행동 대처, 디지털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
- 대 상 :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

<청소년기 부모교육> 사춘기, 자존감만은 꼭!

- 일 시 : 2022년 10월 13일 - 27일(매주 목) 10:30-12:00
- 내 용 : 사춘기의 자존감, 뇌 발달에 따른 사춘기의 문제, 감정코칭
- 대 상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 소 : 온라인 교육 (ZOOM)
- 참 가 비 : 무료
- 신청기간 : 2022년 9월 5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https://goyangfc.familynet.or.kr>)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힘, 나를 보듬다



고양시 여성 노동자 복지센터에서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힐링을 위한 <힘, 나를 보듬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긴장감 완화, 그리고 심신 회복을 통해 소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춤 테라피, 우드 스피커 만들기, 셀프 마사지, 펀치 니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나의 몸에 집중하고 대근육과 소근육을 이용하여 돌봄 노동을 하며 뭉쳐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 또한 풀어버리고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홈페이지 오픈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의 홈페이지가 오픈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소의 소식, 사업들과 가정폭력을 비롯한 테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 및 상담신청, 자원봉사 신청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및 상담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kyvaw.or.kr>

(다녀오실 분께
선정 후원금
200,000원
부담금 환산)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는 작은 사랑’

제22회 고양YWCA나눔바자회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된 여성들의 난방비 지원과
여성인권,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요.

- 일시 : 2022. 10. 21(금) 10:00~16:00
- 장소 : 강선공원(주엽역 6번 출구)
- 품목 : 의류, 생활용품, 화훼, 농산물, 각종 밑반찬,
젓갈류(홍성 새우젓, 멸치젓 외), EM제품(비누터) 등
- 문의 : 031-919-4040

해설사와 함께하는 여성역사기행

- 일 시 : 2022. 10. 7(금) 9시30분~17시
- 집결지 : 고양YWCA
- 참석자 : 고양시민 20명(선착순)
- 접 수 : 고양YWCA(031-919-4040)
- 후 원 : 2022년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사업
- 해설자 : 강시현(새울림교육센터 대표,
여성학 강사)
- 참가비 : 무료(차량비, 여행자보험, 강사료 포함)
점심식사 개인부담
- 장 소 : 북촌일대, 서울교육박물관, 여성운동가길,
전태일기념관, 청계거리, 봉제거리
- ※ 소설 ‘세여자’,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